

94.1.1

佛「결혼」기피증「확산

프랑스에서는 晩婚率
세가 일반화되면서 최근
몇년동안 결
혼하는 사
람들의 숫
자가 계속
감소하고 있
는 것으로
나타났다.

프랑스통
계국(INSSEE)은 5
일 지난 92년 한해동안
전국에서 모두 27만 1천
4백명이 결혼, 91년에 비



晩婚추세

同居급증

해 3%가 줄어 들었
며 작년에는 결혼이
구

가 무려 7%나 줄었
다고 발표했다. 결혼인
구의 감소는 유럽의 공
은 국가가 공통투각이며

프랑스인들의 평균결혼
연령은 27.5세. 특히
20세이하의 나이에 결혼
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
저하게 줄어 지난 72년
전체 결혼인구의 36%에
서 92년에는 불과 7%
로 떨어졌다.

차지했다. 30세에도 결
혼하지 않은 프랑스여성
은 34%, 그리고 35세의
독신 여성은 20%로 집
계됐다.
전반적으로 결혼풍속
이 바뀌고 있으나 남편
이 부인보다 평균적으로
나이가 많은 관행은 프
랑스에서도 여전히 지속
되고 있다. 남편이 부인
보다 평균 2.5세가 많
은 것으로 나타났다. 재
혼인 경우에는 나이가
가 더욱 벌어진다.

해마다 감소勢... 유럽 下位圈 30세 독신女子 34%나 차지

통계인 현상으로 유럽공
동체(EC)의 인구 1천
명당 결혼하는 사람들의
숫자가 90년 6.4명에
서 92년에는 5.6명으
로 낮아졌다.

가장 낮은 국가는 아일
랜드. 프랑스는 아일랜드
보다 오히려 결혼비율이
낮다.
이번 조사에서 나타난
않은 사람이 3분의 2를

25세의 프랑스여성 가운데
결혼한 사람이 전체
의 3분의 2였으나 92년
에는 오히려 결혼하지
않은 사람이 3분의 2를
차지했다. 30세에도 결
혼하지 않은 프랑스여성
은 34%, 그리고 35세의
독신 여성은 20%로 집
계됐다.
전반적으로 결혼풍속
이 바뀌고 있으나 남편
이 부인보다 평균적으로
나이가 많은 관행은 프
랑스에서도 여전히 지속
되고 있다. 남편이 부인
보다 평균 2.5세가 많
은 것으로 나타났다. 재
혼인 경우에는 나이가
가 더욱 벌어진다.

(파리 方炯南)